<h1>나 혼자만 레벨업-66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l8aaa05574d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6화</p>  
<p>박희진은 알게 되었다.</p>  
<p>상급 던전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.</p>  
<p>'성진우 씨가 한송이에게 알려 주려고 했던 걸 내가 배우게 된 꼴이잖아...'</p>  
<p>부끄럽지만 어쩌겠는가?</p>  
<p>무서워해야 하는 것을 무섭지 않다고 우기는 건 만용이며 어리석은 짓이다.</p>  
<p>레드 게이트에서 있었던 일은 분명 살 떨리는 경험이었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그렇다고 해서 B급 헌터가 누릴 수 있는 대우와 지위를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.</p>  
<p>높은 연봉!</p>  
<p>많은 혜택!</p>  
<p>그리고 사회적 인식까지!</p>  
<p>위험하다는 점만 빼면 헌터는 완벽에 가까운 직업이었다.</p>  
<p>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많다는 이야기.</p>  
<p>하지만 박희진은 거기서 리스크까지 줄일 방법을 찾아냈다.</p>  
<p>'성진우 공대장님과 함께 레이드를 하는 거.'</p>  
<p>레드 게이트 안에 있는 동안 박희진이 가장 부러워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한송이였다.</p>  
<p>이유는 단 하나.</p>  
<p>첫날 성진우가 한송이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었다.</p>  
<p>-너는 내가 데려왔으니 책임지고 지켜 준다.</p>  
<p>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한송이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책임지고 지켜 줄 이유가 없다는 뜻.</p>  
<p>그냥 덤이었을 뿐이다.</p>  
<p>그래서 행여 두 사람이 몰래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내내 마음을 졸였었다.</p>  
<p>그리고 6일째 되던 날.</p>  
<p>정말로 성진우는 혼자서 상급 던전을 클리어하고 한송이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다.</p>  
<p>약속을 지킨 것이다.</p>  
<p>그 모습을 보며 박희진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.</p>  
<p>아.</p>  
<p>저 사람 밑에서 레이드를 하면 위험에 빠질 일은 없겠구나, 하고.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그 두근거림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다.</p>  
<p>냉철한 판단력.</p>  
<p>뛰어난 능력.</p>  
<p>그리고 책임감까지.</p>  
<p>다음 레이드에도 꼭 성진우와 함께하고 싶었다.</p>  
<p>그래서 내건 조건이었다.</p>  
<p>'무조건 성진우 공대장이 있는 공격대에 넣어 달라는 조건.'</p>  
<p>백윤호와 안상민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다.</p>  
<p>잠시 후.</p>  
<p>"좋습니다."</p>  
<p>백윤호가 호쾌하게 웃었다.</p>  
<p>"그럼 박희진 씨는 당분간 안 과장님과 같이 움직이세요."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하지만 스카웃은 쉽지 않을 게 분명했다.</p>  
<p>성진우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.</p>  
<p>'레드 게이트에서도 늘 자신감이 넘쳤으니까.'</p>  
<p>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분명 만만치 않을 거다.</p>  
<p>'그래도...'</p>  
<p>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. 박희진은 보이지 않게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무언가를 고민하던 백윤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.</p>  
<p>"안 과장님."</p>  
<p>"네."</p>  
<p>"성진우 씨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."</p>  
<p>"사장님, 그게..."</p>  
<p>안상민은 털어놓았다.</p>  
<p>왜 자신이 진우 이야기를 숨겨 왔었는지.</p>  
<p>백윤호가 곰곰이 들어 보더니 고개를 주억거렸다.</p>  
<p>"그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숨기고 싶을 만도 하죠. 세상엔 남들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."</p>  
<p>그런 남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능력을 보였다.</p>  
<p>위급한 상황인 것도 있겠지만 슬슬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으리라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할 거다.</p>  
<p>"일을 크게 만들지만 않으면 성진우 씨도 안 과장님을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."</p>  
<p>안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물론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할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성진우도 성진우지만, 협회나 백호 입장에서도 알려져서 좋을 게 없었다.</p>  
<p>"그건 그렇습니다만..."</p>  
<p>안상민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.</p>  
<p>성진우 헌터의 단호한 성격을 모르는 사장님이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거.</p>  
<p>그것만은 막고 싶었다.</p>  
<p>"사장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시는 건 아무래도..."</p>  
<p>백윤호도 안상민이 뭘 걱정하는지 눈치챘다.</p>  
<p>"아, 영입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."</p>  
<p>"예? 그럼 왜...?"</p>  
<p>"성진우 씨가 어제 했던 말 그대롭니다."</p>  
<p>백윤호는 박희진이 해 주는 얘기를 듣고 깨달았다.</p>  
<p>성진우는 백호 길드의 은인이었다.</p>  
<p>백호 소속의 신입 세 명을 구했다.</p>  
<p>거기다 레드 게이트를 없애 백호 길드의 명성에 금이 가는 일도 막았다.</p>  
<p>실수는 협회가 했다고 해도, 이 일이 공론화되고 백호 길드가 신입들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대외에 알려지면 길드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을까?</p>  
<p>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.</p>  
<p>몸서리쳐질 만큼.</p>  
<p>'그럼 사람을 다짜고짜 붙들고 조사하려고 했으니.'</p>  
<p>그가 기분 나빠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.</p>  
<p>그 사실을 몰랐다면 모를까.</p>  
<p>알았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 있었다.</p>  
<p>"백호 길드의 대표로서 성진우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. 어제 일도 확실하게 사과해 둘 겸."</p>  
<p>'아, 그런 얘기라면...'</p>  
<p>안상민도 충분히 납득했다.</p>  
<p>맞으면 맞고, 아니면 아닌 백윤호의 성격에 감사한답시고 영입 문제를 들먹이며 성진우를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터.</p>  
<p>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었다.</p>  
<p>"알겠습니다."</p>  
<p>안상민은 폰을 꺼냈다. 금방 성진우의 번호를 찾았다.</p>  
<p>"번호가 어떻게 됩니까?"</p>  
<p>백윤호도 연락처를 받아 적기 위해 폰을 꺼내 들었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"번호가..."</p>  
<p>막 번호를 읊으려던 안상민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"저기, 박희진 헌터님은 왜?"</p>  
<p>"아, 네..."</p>  
<p>박희진은 왠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연락처 추가 화면이 떠 있던 폰을 슬그머니 감추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대한민국 최고의 길드 헌터스.</p>  
<p>헌터스의 사장이자 현역 S급 헌터인 최종인에게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흘러들어왔다.</p>  
<p>"이거... 확실한 겁니까?"</p>  
<p>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사장실의 문을 두드렸을까?</p>  
<p>영입담당부 부장 조명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예. 오늘 협회에서 얻어 낸 정보입니다."</p>  
<p>대형 길드들은 협회에 정보원을 하나씩 두고 있었다.</p>  
<p>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야 상급 각성자가 나타났을 때 한발 앞서 연락할 수 있으니까.</p>  
<p>그런데 오늘은 정보원이 묘한 이야기를 흘렸다.</p>  
<p>조명기는 고민 끝에 사장실로 올라왔다.</p>  
<p>'최근 상승세인 백호 길드는 헌터스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초대형 길드니까.'</p>  
<p>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했다.</p>  
<p>조명기의 예상대로 최종인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.</p>  
<p>"A급 하나, B급 여섯이 죽은 레드 게이트에서 C급 둘이 살아 나왔다? 그것도 던전을 클리어하고?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, 이건."</p>  
<p>B급 하나가 껴있는 건 그렇다 쳐도.</p>  
<p>메모를 읽어 내려가던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"분명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조력자가 있었던 겁니다."</p>  
<p>최종인은 확신했다.</p>  
<p>오랜 레이드 경험이 그리 말하고 있었다.</p>  
<p>조명기가 대답했다.</p>  
<p>"협회에서도 그쪽을 의심해 봤나 봅니다. 그런데..."</p>  
<p>"그런데요?"</p>  
<p>"백호가 입을 다물었답니다."</p>  
<p>"그래서 그냥 넘어간답니까?"</p>  
<p>"아무래도 이번에는 협회 쪽 잘못이 커서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아 한다더군요."</p>  
<p>"흐음..."</p>  
<p>최종인이 턱 끝에 손을 가져다 댔다. 그가 생각에 잠길 때의 버릇이었다.</p>  
<p>협회는 그렇다 쳐도, 백호는 왜 쉬쉬할까?</p>  
<p>결론은 하나다.</p>  
<p>"백호 쪽에서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구만."</p>  
<p>"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"</p>  
<p>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.</p>  
<p>최종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.</p>  
<p>'상급 헌터 다수가 죽었던 높은 난이도의 던전에서 하급 헌터들을 구해 낸 이름 없는 조력자라...'</p>  
<p>정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.</p>  
<p>'아직 각성자 판정을 받지 않은 신인? 아니면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범죄자?'</p>  
<p>어느 쪽이라도 좋다.</p>  
<p>신인이라면 헌터스로 데려와야 할 것이고, 범죄자라면 백호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다.</p>  
<p>최종인의 눈이 반짝였다.</p>  
<p>"거기 누가 있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."</p>  
<p>"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?"</p>  
<p>"숨어 있는 너구리를 잡으려면 너구리굴에 불을 질러야지요."</p>  
<p>조명기가 눈을 뎅그렇게 떴다.</p>  
<p>"백호 길드에 불이라도 지르실 생각이십니까?"</p>  
<p>"내가 미쳤어요? 멀쩡한 남의 회사에 불을 지르게."</p>  
<p>"아, 죄송합니다. 사장님께서 워낙 훌륭하신 마법계열 헌터시다 보니..."</p>  
<p>오죽하면 별명이 최종병기일까?</p>  
<p>최종인이 마음먹고 스킬을 쓰면 빌딩 하나 날리는 건 식은 죽 먹기긴 했다.</p>  
<p>아무튼 최종인이 말을 이었다.</p>  
<p>"그게 아니라, 화제를 만드는 겁니다."</p>  
<p>"그러니까 불을."</p>  
<p>최종인의 눈매가 매서워지자 조명기가 입을 다물었다.</p>  
<p>"언론에 제보합시다."</p>  
<p>'그런!'</p>  
<p>조명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헌터 협회의 실수, 대형 길드의 참사, 그 뒤에 감춰진 미스터리. 이거 언론이 딱 좋아할 소재 아닙니까?"</p>  
<p>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.</p>  
<p>최종인은 후후 웃었다.</p>  
<p>"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 백호길드도 제풀에 지쳐서 조력자의 정체를 공개하게 될 겁니다."</p>  
<p>"그런 방법이 있었군요!"</p>  
<p>조명기도 따라 웃었다.</p>  
<p>헌터스의 뒤를 바짝 추격해 오는 백호에게 한 방 먹여 줄 기회.</p>  
<p>최종인의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.</p>  
<p>"기자들에게 당장 연락하세요."</p>  
<p>\*\*\*</p>  
<p>[던전에 입장하였습니다.]</p>  
<p>진우는 던전에 들어가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.</p>  
<p>'흠.'</p>  
<p>며칠 필드형 던전 안에 갇혀 있었더니, 동굴형 던전의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다.</p>  
<p>곧 유진호가 따라 들어왔다.</p>  
<p>"이번 던전에선 어떤 마수가 나올까요?"</p>  
<p>"글쎄..."</p>  
<p>'분명 기척은 가까이 있는데.'</p>  
<p>기척은 가까운데 보이지가 않았다.</p>  
<p>한 걸음 앞으로 내딛자.</p>  
<p>여기저기서 동굴 바닥이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.</p>  
<p>우두두두.</p>  
<p>우두두.</p>  
<p>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피부가 암석으로 이뤄진 마수들.</p>  
<p>유진호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냈다.</p>  
<p>"형님, 스톤맨들입니다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하급 던전에서 볼 수 있는 마수들 중 가장 표피가 단단하다고 알려진 놈들.</p>  
<p>대개 스톤맨을 잡을 때는 마법을 써야 한다는 게 상식이지만.</p>  
<p>"잠깐 들고 있어."</p>  
<p>진우는 원통형의 비닐팩을 유진호에게 맡기고 마수들에게 걸어갔다.</p>  
<p>'헉!'</p>  
<p>안에 든 게 무기인 줄 알고 있던 유진호가 잠깐 움찔했으나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다.</p>  
<p>'무기가 아닌가?'</p>  
<p>그사이 스톤맨들 앞에 선 진우가 '바루카의 단도'와 '나이트 킬러'를 불러냈다.</p>  
<p>스걱!</p>  
<p>순식간에 맨 앞에 있던 스톤맨의 머리가 굴러떨어졌다.</p>  
<p>진우는 '바루카의 단도'를 바라보며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쓸 만하네?'</p>  
<p>씩 웃던 진우의 신형이 순간 사라졌다.</p>  
<p>착.</p>  
<p>진우가 스톤맨들 뒤에 나타난 것과 동시에 10여 마리가 넘었던 놈들이 일제히 쓰러졌다.</p>  
<p>후두두두둑.</p>  
<p>'레드 게이트에서 나온 뒤로 몸이 한층 더 가벼워졌다.'</p>  
<p>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.</p>  
<p>현재 레벨은 60.</p>  
<p>곰들과 백귀를 잡고 51이었던 레벨이 아홉 계단이나 올라갔다.</p>  
<p>C급 마수들이 예전 E급 던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블린처럼 느껴졌다.</p>  
<p>'이 정도면 무기를 꺼낼 필요도 없겠다.'</p>  
<p>몸풀기는 이 정도면 됐고.</p>  
<p>'사냥 속도를 좀 더 올려 볼까?'</p>  
<p>병사들을 쓸 때가 됐다.</p>  
<p>마침 동굴 안 저편에서 또 한 무더기의 스톤맨들이 어슬렁어슬렁 접근해 왔다.</p>  
<p>'소환.'</p>  
<p>지시를 내리자 진우의 그림자에 갇혀 있던 그림자 병사들이 진우의 뒤편에서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그러자 비명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"으아악!"</p>  
<p>아차.</p>  
<p>진우가 이마를 짚고서 돌아보았다.</p>  
<p>'저 녀석이 있었지.'</p>  
<p>너무 신을 내다 보니 유진호의 존재를 깜박하고 말았다.</p>  
<p>"혀, 혀형님."</p>  
<p>유진호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 손가락으로 자기 옆에 나타난 그림자 병사들을 가리켰다.</p>  
<p>"이, 이것들이 다 뭡니까?"</p>  
<p>"설명하면 복잡한데... 일단은 내 스킬."</p>  
<p>"스, 스킬로 이런 것들을 불러내실 수 있다고요?"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유진호는 벌린 입이 다물어 지지가 않았다.</p>  
<p>"아..."</p>  
<p>형님과 함께 던전에 들어 온 지도 벌써 11번째.</p>  
<p>더 이상 놀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, 오산이었다.</p>  
<p>역시 형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였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살벌한 기운을 풍기는 검은 갑옷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유진호는 힘들게 침을 삼켰다.</p>  
<p>진우가 다시 시선을 옮겼다.</p>  
<p>느리게만 보였던 스톤맨들이 어느새 근처까지 도착해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놈들을 향해 턱짓했다.</p>  
<p>"출동."</p>  
<p>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병사들이 달려 나갔다.</p>  
<p>두두두두.</p>  
<p>사십 가까이 되는 병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자 동굴 바닥이 흔들렸다.</p>  
<p>확실히 아이언과 마수병들 같은 덩치들이 느니 병사들의 무게감이 늘었다.</p>  
<p>'꼭 전차부대를 보는 거 같네.'</p>  
<p>진우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병사들이 휩쓸고 지나가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던전이 깔끔하게 정리됐다.</p>  
<p>주변엔 온통 진흙 쿠키처럼 부서진 스톤맨들의 잔해뿐.</p>  
<p>C급 던전 하나가 한순간에 박살났다.</p>  
<p>호-</p>  
<p>진우가 감탄했다.</p>  
<p>'이 정도면 남은 레이드도 금방 끝낼 수 있겠는데?'</p>  
<p>남아있는 여덟 번의 레이드가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같지 않았다.</p>  
<p>척, 척, 척.</p>  
<p>전투가 끝나자 마정석을 수거한 그림자 병사들이 진우 앞으로 반듯하게 정렬해 섰다.</p>  
<p>맨 앞에는 이그리트와 아이언.</p>  
<p>두 기사가 나왔다.</p>  
<p>병사들이 모든 움직임을 멈추자 그제야 유진호가 살며시 진우 옆으로 다가왔다.</p>  
<p>"형님, 여기..."</p>  
<p>진우에게서 넘겨받았던 비닐팩을 돌려주었다.</p>  
<p>진우는 비닐팩에 쌓여 있던 텀블러를 꺼내 빨대를 물었다.</p>  
<p>"형님 그게 뭡니까?"</p>  
<p>"채소 주스."</p>  
<p>"아..."</p>  
<p>"마셔 보니 괜찮더라고."</p>  
<p>쿠르륵 쿠륵.</p>  
<p>텀블러가 거의 다 비었을 때쯤 유진호에게 물었다.</p>  
<p>"진호야, 오늘 게이트 몇 개 잡았지?"</p>  
<p>조심스럽게 마수병의 털끝을 만져보려던 유진호가 동작을 멈추고 돌아보았다.</p>  
<p>"네 개입니다, 형님."</p>  
<p>오늘 네 개를 끝내면 남은 게이트는 다섯 개.</p>  
<p>질질 끌 이유가 없었다.</p>  
<p>"그럼 내일 끝내 버리자. 좀 멀리까지 가도 상관없으니까."</p>  
<p>"내일 말씀이십니까?"</p>  
<p>문득 유진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스톤맨들의 잔해를 돌아보던 유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'확실히 이 속도라면...'</p>  
<p>"알겠습니다, 형님. 그런데."</p>  
<p>머뭇거리던 유진호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.</p>  
<p>"마정석은 제가 주우면 안 되겠습니까?"</p>  
<p>"왜?"</p>  
<p>"제 자리를 뺏긴 거 같아 분합니다, 형님."</p>  
<p>진우가 피식 웃음을 터트렸다.</p>  
<p>'하여간 별난 녀석이라니까.'</p>  
<p>그로부터 하루 뒤.</p>  
<p>진우는 유진호와 약속했던 19번의 레이드를 모두 채웠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